

간호대학생의 혼합 수업 경험

서명희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The Experience of Mixed Lectures of Nursing Students

Myoung Hee Seo

Division Depart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면-비대면 혼합방식 수업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V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7명이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하여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연구는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였고, 인터뷰 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인터뷰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내용분석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대면-비대면 혼합강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으로, 5개의 영역, 10개의 범주, 2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영역 '혼합강의'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2영역 '과제'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쌓임', '언택트 조원과 온택트하기'라는 범주가, 3영역 '시험'에서는 '잃어버린 공부패턴', '도움의 끈' 범주가 도출되었다. 4영역 '동기'는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범주가 도출되었고, 5영역 '개선점'에서는 '운영의 묘', '스스로 체질개선'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각 영역의 내용들은 추후 대면-비대면 혼합강의 설계 시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examine the mixed offline and online educati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7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J City V Universit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ufficient explanation and written consent for the study.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interview contents were directly transcribed directly after the interview.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5 domains, 10 categories, and 24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mixed lectures. The 5 domains included 'mixed lectures,' 'tasks,' 'tests,' 'motivation,' and 'improvement.' The contents of each domain derived from this research result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design of the on/offline mixed lectures in the future.

Keywords : Focus Group Interview, Mixed Lecture, Nursing, Student, Contents Analysi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초 시작된 전 세계의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의 생활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교육의 장인 학교

에서의 대혼란을 야기했다. 초, 중, 고, 대학교에서는 방역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으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자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1]. 코로나 19의 상황은 잠시

*Corresponding Author : Myoung Hee Seo(VISION univ., college of Jeonju)

email: seomh@jvision.ac.kr

Received December 22,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January 18,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의 유행으로 머무르지 않고 2020년 12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행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더해져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코로나 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져[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20년 1학기에 교육의 질, 학교 시설 불이용 등의 이유로 등록금 반환요구를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학등록금 반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하였다[3].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당국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매체활용, 교육방법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썼다. 교수학습 과정의 당사자인 대학의 교수들도 처음 경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비대면 강의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2학기를 준비하는 여름방학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교수법, 1학기에 활용된 성공적인 수업 운영사례에 대한 발표 등으로 구성된 여러 연수들을 참가하며 2학기를 대비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미국 대학 교수들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4].

2020년도 1학기에는 코로나 19에 무방비 상태로 혼란을 겪었다면, 2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도되었다. 그 중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혼합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혼합형 학습이란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방법, 학습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소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설계 전략으로, 주로 온라인 학습전략과 오프라인 학습전략을 적절히 결합, 활용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정의한다[5].

혼합형 학습은 처음에 기업환경에서 시도되었다가 점차 학교 현장으로 확산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6]. 혼합형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모든 대면, 비대면 수업운영 형태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강의방법에서 운영되던 방식에 혼합방식을 도입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7,8].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현실의 장벽 내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불과 1

년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2020학년 신입생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연구[9], 간호대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질적 연구[10], 상담전공생들의 비대면 학습경험 연구[11],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수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12]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확인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러운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놓인 우리는 2020년도 2학기 시점에서 시도된 혼합형 수업을 제공받은 학생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면-비대면이라는 혼합수업방식으로 학습하였던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Focus Group Interview(이하 FGI) 방법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면-비대면 혼합형 수업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FGI를 이용한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연구결과로 도출된 혼합수업방식의 장·단점,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좀 더 효율적인 혼합형 수업 운영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혼합형 수업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FGI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위치하고 있는 V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로, 본 연구를 이해하고 인터뷰에 동의한 자이다. FGI에 적절한 인원인 6~8명에 해당하는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2학년으로 구성하였는데 1학년은 1학기부터 비대면 강의 진행으로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므

로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학년의 경우는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이 2주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4학년의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 진행 및 국가고시와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 변수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대상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를 2학년으로 한정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질문 개발 및 인터뷰 시나리오 작성

질문의 개발은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하게 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Krueger & Casey[13]가 제시한 질문방식인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의 5가지 질문 종류로 세분화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편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시작질문: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불리워질 이름을 각자 정하셔서 앞에 이름판에 적어주세요. 요즘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입질문: 대면 수업이 있는 날에는 수업 외의 시간에는 주로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 전환질문: 1학기에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은 어떠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주요질문
 - ① 2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대면-비대면 혼합형 수업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② 혼합형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공부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③ 앞으로도 혼합형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 ④ 중간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였습니다습니까?
 -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를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마무리 질문: 현재 본인은 혼합형 수업방식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혼합형 방식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는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2.4 자료수집

2.4.1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로 연구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질적연구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학회 정회원으로 질적연구 계획서 발표회, 질적연구에 관한 워크샵에 참석하며 질적 연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왔다. 또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서적을 숙독하고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질적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현상학적 질적연구로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포토토보이스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질적연구를 진행 중으로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2.4.2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속해 있는 학과내 채팅창에 연구 주제와 FGI에 대하여 소개한 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인터뷰 전달에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당일에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FGI는 11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통화하여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는 조용한 소그룹 토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체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독려했다. 연구자는 인터뷰의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의 핵심내용을 메모하고 현장 분위기를 기록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의미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부연 설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진행 동안에 연구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참여자를 독려하는 역할도 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들이 모두 돌아오고 난 후 연구자는 그 자리에 남아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녹음상태를 확인하였다. 인터뷰 녹음자료는 가능한 빨리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의에 따라 연구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교육개선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설명하였다. 설명문을 낭독하고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녹음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녹음을 잠시 멈출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녹음 중에도 대상자의 실명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고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된 후 모두 파기함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6 자료분석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포커스 그룹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인터뷰 녹음 내용이 기록된 전사본과 현장노트이다. 이들 자료는 Hiesh & Shannon[14]에서 제시한 질적내용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 중 Directed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연구자는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후 FGI질문을 중심으로 코딩 틀을 설정하여 구조화된 변수를 코딩 카테고리 사용하였다. 그러나 질문의 틀에 사고를 고정하지 않고 추출된 단어와 구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여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하여 범주화 하면서 주제를 확정하였다.

3. 연구결과

7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혼합형 수업방식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은 수업경험에 대한 24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 그리고 5개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3.1 영역1. 혼합강의(Mixed Lecture)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1은 강의 영역으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1.1 긍정적인 면

강의운영 부분에서 혼합형 수업방식의 긍정적인 면은 일부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1학기 비대면 수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수업의 질과 이해도가 증가하였고, 또한 일부 비대면수업 진행으로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고, 시간활용에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저는 1학기 때 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수업 질도 약

간 많이 좋아지고...’ (참여자 5)

‘저는 대면 때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책에 많이 필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판데로 넘어가시면 저는 못 듣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비대면은 그런거 상관없이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춰서 듣고 필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비대면이 저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참여자 6)

Table 1. The Experience of Mixed Lectures of Nursing Students

Do-main	Category	Sub-category
Mixed Lecture	Part of pos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quality and understanding of classes guaranteed in off-line ▪ On-line lectures at coordinated my pace ▪ Use of relatively spare time
	Part of neg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endance certification first, learning later ▪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 Doubts about equity ▪ A heavy major book that must be carried every time.
Task	A buildup of anxiety and dis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xiety and obsession with completing off-line tasks ▪ Unnecessarily added off-line tasks
	On contacting with Untact 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ing Membership ▪ Quantity and quality of increasing task ▪ The discomfort to be together
Test	Lost Learning Patte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iarized Open Book Test ▪ My forgotten way of studying ▪ Laziness and abandonment
	String of h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playing video lecture
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teful tuition ▪ Encouraging and cheering of the people around
	Internal moti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during for my dreams and future ▪ Enduring with one's colleagues
Improvement	The cleverness of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efficiency of on/off-line lecture operation ▪ The acceptability of a task
	Self-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d control ▪ Body control

3.1.2 부정적인 면

강의운영 부분에서 혼합수업방식의 부정적인 면은 학습은 뒷전으로 하면서, 출석인증을 우선하게 되고,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며, 먼저 수

업을 진행한 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매주 마다 무거운 전공책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게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LMS는 내가 강의 들은 것이 시간이 적히니까 늦게 듣거나 안 들은 것도 적히니까 약간.. 그냥 강의 시간에 틀어놓고 시험기간에 다시 듣게...' (참여자 6)

'교수님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불안정하다? 그니까 학생들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교수님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이 물어보니까 교수님도 지치고 학생들도 그니까 학생들도 물어보기 꺼려지고 조용해지고 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도우미한테만 푸쉬하니까...(중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참여자 2)

'저희가 지금 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먼저 하는 조가 매를 먼저 맞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a조가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b조에 비해서 크다. 매도 먼저 맞고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먼저 나오니까 그 피드백을 또 전달해주시니 b조가 더 영향이 더 발휘되서 a조가 불안해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2)

'통학하면 책을 다 갖고 다녀야 해서 어깨 빠져요. 전공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하루에 몇 과목 들어 있으면 그 과목들을 다 가지고 다녀야 해서 다음 주가 비대면이면 그 책을 다시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야 해서 무겁고 힘들어요.' (참여자 3)

3.2 영역2. 과제(Task)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2는 과제영역으로 '불안과 불만이 쌓임', '언택트 조원과 온택트하기'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2.1 불안과 불만이 쌓임

혼합수업에 대한 경험 중 비대면시 부여되는 개인과제가 과목 및 교수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제출기한도 모두 달라 학생들은 비대면 과제 제출이 혼란스럽고 과제제출 완료를 한 후에도 제출에 대한 불안과 집착이 심해져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하며, 강의시청 후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과제부여에 대한 불만을 진술하였다.

'(대면, 비대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헷갈려요 계속.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과제를 해야 하는지 저 과제를

를 해야 하는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했는지 안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고...' (참여자 3)

'과제를 딱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내면 편한데 교수님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날은 3일 주셨다가 어떤 날은 일주일 주셨다가 하니까 우리는 너무 헷갈려서.. 제출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요.' (참여자 5)

'LMS는 동영상 보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왜 과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7)

3.2.2 언택트 조원과 온택트하기

혼합수업에 대한 경험 중 조별과제를 위해 조원들과 멤버십이 증가되는 잇점은 있으나 1학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된 조별과제의 양과 질적 완성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조별과제를 위해 조원들과 시간조율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좋은 쪽으로 말하면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막 솔직히 우리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아니면 대면 몇 시간 하고 그냥 집 가고 그러니까 그런 교류가 전혀 없거든요.' (참여자 5)

*'*** 할 때도 이게 비대면(학생)만 묶어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대면 비대면이 섞여 있어서 거기서도 또 그래요. 저 애들은 그 시간에 수업을 나가야 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하고 하다가 밤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학하는 애들은 집가서 준비해서 또 조별 모임 해야 하고 그런거. 그런거 할려면 조를 대면조 따로 비대면조 따로 좋을텐데 둘이 할려니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7)

'저희가 과제 중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과제가 있어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도 만나고 따로 만나서 연습하고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동영상을 찍는 시간을 맞추는데 애들끼리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가 힘들어요.' (참여자 3)

3.3 영역3. 시험(Test)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3은 시험영역으로 '잃어버린 공부패턴', '도움의 끈'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3.1 잃어버린 공부패턴

혼합수업에 대한 경험 중 많은 학생들이 1학기에 비대

면 시험 오픈북 시험에 익숙해져서 내용이 외워지지 않으며, 그동안 본인이 공부해왔던 패턴을 잊어버려서 힘들었으며, 시험기간에 공부에 계엄령을 피우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 방대한 공부분량에 포기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비대면 때는 시험볼 때 책을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을 표시만 해놓고 시험 볼 때 찾아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다시 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책을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외우는 게..' (참여자 3)

'처음에 한 3주 동안은 진짜 공부를 손도 못 댔어요. 그 뒤에 하려고 하니깐 이제 제가 1학기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까먹은 거예요. 시험기간에 어떻게 정리했고 그런 것을 까먹어서...(중략)... 시험이 망한 거 같아요.' (참여자 7)

'시험기간이 기니까 그것도 힘든데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 확 열심히 해야지 중간에 (과제 등이) 끼어 있으니까 주말에 (공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바빠가지고 헉헉대고.. 그랬어요.' (참여자 5)

3.3.2 도움의 끈

비대면 강의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그나마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의 끈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듣기가 가능한 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돌려서 들어요. 이해 될 때 까지.' (참여자 2)

3.4 영역4. 동기(Motivation)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4는 동기영역으로 '외적동기', '내적동기'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4.1 외적동기

혼합수업방식에 대한 경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견디게 하는 외적동기로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 견디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학비도 아깝고 동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바라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분발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3.4.2 내적동기

혼합수업방식에 대한 경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견디게 하는 내적동기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있으며, 혼자 힘든 것이 아니고 함께 견디고 있는 동기들이 있어 힘을 내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원래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거 교수님들이 막 혼내시고 하는 거도 나중에 어짜피 나중에 겪어야 할 일이다 생각해요. 미리 사회생활 시켜주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아니고 힘든 것을 다 같이 견디고 있으니 같이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도 있고 좋은 것도 이야기 하고 그럴 수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3.5 영역5. 개선(Improvement)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5는 개선영역으로 '운영의 묘', '스스로 체질개선'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5.1 운영의 묘

혼합수업운영의 방식을 현재의 격주가 아닌 4주단위로 대면-비대면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하며, 수용할 만한 수준의 과제부여를 제안하였다.

'혼합을 한 달 비대면, 한 달 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올 것 같아요 격주는 너무 힘들어요 헛갈리고..' (참여자 3)

'과제를 좀 줄여주면.. 대면과제 따로 비대면과제 따로 하다보니 수업을 들었는데 왜 과제가 있는거지? 이런 생각..' (참여자 2)

3.5.2 스스로 체질개선

혼합수업운영방식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과 몸을 추스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학업, 시험에 대하여) 불안한 것을 떨어뜨리려고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습이 될 된 것 같아요. 불안한 것을 떨어뜨리려고 수공을 하는데..' (참여자 2)

'체력이 안 따라줘요. 격주니까 힘들어요. 너무 과제도 많고...(중략)... 체력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4)

'제가 그냥 느릿느릿만 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혼합형 수업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FGI를 시도한 질적연구이다. 본 FGI를 통하여 얻어진 질적 자료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혼합형 수업을 경험함에 있어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진술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대면 강의의 장점들은 2020년 1학기에 대학생들의 전면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강의 수강의 편리함[9], 효율적 시간 활용[11]이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비대면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효율적 시간관리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15].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학습의 경우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의하여 시간 활용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따른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 수업방식의 효과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혼합형 수업 경험에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됨에 따라 교수자와 학생간, 또한 학생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한 방향 듣기'[9], '위축된 소통과 행동패턴'[11], '소통의 부재로 현존감이 감소됨'[9]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비대면 강의로 진행함에 있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혼합형 강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혼란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업을 대면으로 하는 주, 비대면으로 하는 주, 과제를 제출하는 주,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주, 과목마다 과제 제출기한의 다양성 등으로 혼란스러워 하였다.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할 때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혼합형 강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때는 교수와 학생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한 노력과 채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12]와도

같은 결과이다.

시험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1학기에 비대면, 오픈 북 형태로 진행되었던 시험에 익숙해져서 공부하는 습관이나 방법을 다시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온라인 학습만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성적을 비교한 선행 연구[8]에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한 수업이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비대면 형식으로만 진행된 강의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Kim의 연구결과[8]에 따르면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순으로 성적 향상에 기여하는 강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면 강의를 접목시켜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익숙치 않은 수업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내, 외적 동기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학생들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같이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 동료들이 있기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불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이 팽배한 현대 사회 [16]에서 결국 모두가 공평하게 겪는 힘든 상황때문에 동료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동료의식이 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7]와 연결되며, 본 연구에서는 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학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a조 학생들이 b조 학생들에 비해 본인들이 항상 수업, 과제 제출 등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대한 불공정성을 인식하지 않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즉, 공정한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동료의식을 활용하여 학습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은 혼합형 수업의 개선사항에 대한 진술에서 대면-비대면 순환의 간격이나 수용할 만한 수준의 과제부여를 제안하였다. 이는 혼합수업방식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찾기가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혼합형 수업형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운영 사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 결과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주 대면-비대면 순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주 또는 4주 주기로 대면 비대면을 순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의견으로 과목 내 중요한 내용을 대면으로 듣는 학생과 비대면으로 듣게 되는 학생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과목 특성에 맞게 교수와 학생간의 합의에 의한 혼합형 수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합형 수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개선할 부분이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의의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주도적 학습 상황으로 인식[11]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혼합형 수업에서도 자신을 교수학습에 있어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혼합형 수업 등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가 자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스스로 학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 정도가 높은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 된 바 있으므로 [18,19,20],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면-비대면 혼합형 수업방식을 적용받은 학생들의 경험을 FGI로 수행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구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면-비대면의 혼합형 수업 형태로 진행한 강의형식에서 수치화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과 어려움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에 이러한 혼합형 수업방법을 운영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한다면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첫째,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따른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형

수업방식의 효과를 분석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혼합수업 모델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Internet]. sejong: Press Release. [cited 2020 Sep, 20], Available From: <https://bit.ly/3fOADO3> (accessed Dec. 31, 2020)
- [2] M. K. Kim, Reboot, p. 275, oongjinjiskhouse, 2020, pp.27-29
- [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nternet]. sejong: 'The return of college tuition', [cited 2020 Sep, 20], Available From: <https://bit.ly/2NiRJKn> (accessed Dec. 31, 2020)
- [4] Kyosu newspaper "'Burnout' by Corona-19". [Internet]. Seoul. www.kyosu.net [Cited 2020 Sep, 21], Available From: <https://bit.ly/3mytVhb> (accessed Dec. 31, 2020)
- [5]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Educational Technonology Dictionary, 2005, kyoyookbook
- [6] SHUAI, Z., *Development Study on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for Blended Synchronous Learning*,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3p.
- [7] M-J. Ha, "Implementing Mobile-Mediated Blended Learning in the College Classroo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9, pp.325-334, 2018.
- [8] K. H. Kim, "Study on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Blended Learning-based College Lectures in Online Cours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 No.5, pp.239-249, 2020.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0.14.5.239>
- [9] J. H. Kang, S. M. Son, S. T. Han,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n-face-to-face Lecture by College Freshmen Using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4, pp.397-408, 2020. DOI: <http://dx.doi.org/10.21184/jeika.2020.10.14.7.397>
- [10] S. N. Kim, "The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bout on-line Lectur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477-491,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17.477>
- [11] J-H. C, "A completely changed experience to face-to-face learning: Focusing on counseling majo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6, pp.1105-1135,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16.1105>
- [12] M. E. Kim, M. J. Kim, Y. Oh, S. Y. Jung, "The Effect of

- On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virus(COVID-19) on the Learning Motivation,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519-541, 2020.
- [13] R. A. Krueger, & M. A. Casey,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249p.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4. pp.44-46.
- [14] H. F. Hsieh, &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15, No.9, pp.1277-1288, 2005.
- [15] B. Jeo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Learning Consult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3, pp.1375-1386,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3.98>
- [16] Munhwailbo, “If the idea of unfair competition spreads, society collapses.” [internet]. seoul: www.munhwa.com [cited 2020 Sep 20] Available From: <https://bit.ly/2LWKE11> (accessed Dec. 31, 2020)
- [17] Y. Kim, Y. Suh,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ompanionship on team effectivenes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31, No.3, pp.695-714, 2018.
DOI: <http://dx.doi.org/10.24230/ksiop.31.3.201808.695>
- [18] A. K. Yang, H. J. Jo,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upon academic achievement”, *J Korean Educ Forum*, Vol.8, No.3, pp.61-82, 2009.
- [19] R. W. Ma, E. J. Le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521-531, 2017.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7.7.10.048>
- [20] M. J. Oh, “ The Effect of Self-Regulation Learning, Teaching Pres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K-MOOC Setting”,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6, No.2, pp.191-212, 2020.
DOI: <http://dx.doi.org/10.26857/JLLS.2020.5.16.2.191>

서 명 희(Myoung Hee Seo)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1년 5월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병원 HIV 상담간호사
- 2017년 3월 ~ 2019년 2월 : 군산간호대학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 HIV, 간호교육